

# '갈등 해결 모범' 고창군 폐기물소각시설 가동

### 공론화 통해 인근 주민들 설득 주민협의체 구성해 투명 관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문제가 고창군에서는 공론화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모범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군은 기존 매립시설 포화화 환경부의 '쓰레기 매립 제로화' 정책에 따라 사업비 153억원을 투자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 최근 시운전을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019년 1월 착공했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보호를 주장하며 소각시설 건립 백지화를 요구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년 여 진통이 이어지자 고창군은 공

론화를 통해 주민을 설득, 합의를 이끌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론화 합의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개정,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완, 매립장 정비사업 주민설 명회, 주민감시요원 복무 규정 제정 등이었다. 이후 고창군은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소각 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유기상 고창군수는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와 투명한 관리로 주민들의 양보와 합의에 보답할 것"이라며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근 정상가동을 시작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 남원역~지리산 정령치 하루 6회 순환버스 내달 1일부터 운행



남원시는 남원역과 지리산 정령치를 오가는 순환버스(사진) 운행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순환버스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남원역에서 달궁까지 코스만 운행했다. 버스는 남원역~광한루원~주천 들레길 안내센터~육모정~정령치 코스와 남원역~운봉읍사무소~인월터미널~뽕사골~달궁~정령치 코스로 나눠 하루 3회씩 총 6회 운행한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하며, 요금은 편도 기준 1000원이다.

정령치는 지리산 종주의 주요 시작점으로, 지리산 주요 능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명소다.

남원시 관계자는 "순환버스 운행으로 전국의 등반객이 더욱 편리하게 지리산을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시 명품 쌍화차집 육성 업소 30곳 500만원씩 조명 교체 등 환경개선비 지원



정읍시 쌍화차 거리.

정읍시는 쌍화차를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쌍화차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후 간판과 조명 교체 등 소규모 환경정비를 지원해 정읍 쌍화차의 상표 가치를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사업장을 정읍시로 등록한 전통 찻집으로, 쌍화차를 주매뉴로 판매해야 한다. 입자 점포는 건물주의 사업추진 동의서가 필요하다.

2019년 주민주도형 골목상권활성화사업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정읍시는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총 30곳을 선정한다. 선정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읍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익산 성당포구마을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7월부터 지급

### 현판식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 시작 70세 이상 주민 매달 10만원씩



익산시는 지난 26일 성당포구마을에서 '마을 자치연금 전국 제1호마을'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 오는 7월부터 '마을 자치연금'이 지급된다.

익산시는 지난 26일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 자치 연금을 도입한 성당포구마을에서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 마을'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 자치연금은 공동의 수익사업 등을 통해 놓여준 지역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1억4000여만원을 출연해 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수익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금 지급 대상은 70세 이상 성당포구마을 주민 30여 명 가운데 마을 공동체사업 참여자이며, 매달 10만원 가량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공사가 본격화하며 이르면 7월 완공 이후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이 사업이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다른 마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마을 자치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을 안착시켜 마을공동체 회복의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친환경 농생명 문화 확장"

### 6대 부문·15개 세부 전략 제시

고창군이 '친환경 농생명 문화의 스마트한 확장'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장기종합발전 계획(2021~2030)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발전 계획은 '풍요로운 일터'와 '관광 기반의 놀터', '더불어 살아가는 삶터' 등 3대 목표로 6대 부문·15개 세부 전략·14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농생명 식품산업은 저탄소, 친환경 농식품 생산에 역량이 집중된다.

첨단농장 등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기반 마련과 특용작물 개발이 진행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가정간편식, 구독경제 등 농산물 유통체계의 지역화 방안도 제안됐다.

산업경제 부문에선 전력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과 농촌형 MICE 관광산업, 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최한다.

이밖에 생물권 학습 벨트, 연안항만 조성, 문수산 생태공간 재창조 사업, 고인돌 단지 조성, 마한 역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 노을대교·서해안 철도 광역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식품과학 세계로 떠나요"

### 순창군 푸드사이언스관 31일 개관



순창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식품과 관련한 체험을 즐기는 푸드사이언스관(사진)을 오는 31일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푸드사이언스관은 읍내 고추장마을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1234㎡ 규모로 건립됐다.

이 곳에는 음식, 문화, 미래 식품 등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관과 식품 모형을 본드 미디어아트관, 발효식품을 테마로 한 아이 쉽터, 계절별 테마놀이 터 등을 꾸렸다.

승마 전투게임장, 식품 모형, 순창 장류·요리를 만드는 가상 체험시설, 우주식량 코너도 있다.

순창군은 푸드사이언스관 옆에 미생물 뮤지엄, 어린이 과학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다년생 식물원, 플라워 카페 등을 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어린이들이 상상 속 세계를 경험하도록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